



구례 사성암에서 바라본 섬진강. 섬진강은 전남과 경남의 경계를 가르고 흐르지만 예부터 사람과 물자의 이동통로가 되면서 영호남 문화와 경제를 아우르는 화합의 강이었다. 동서통합지대로 거듭나 영호남 화합의 매개체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

전라도 윗마을 경상도 아랫마을 잇는 600리 '소통의 물길'

뫼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

박근혜 정부들이 섬진강 수계를 동서통합지대로 조성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. 역사속 섬진강은 영호 남의 경제와 문화, 생활, 정서를 아우르는 화합의 강이었 다.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계기로 섬진강이 갖는 영호남 화 합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서통합지대가 나아가 할 방향 을 시리드로 점검해본다.



<1> 들어가며

전북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 강은 전북·전남·경남 등 3개 도 15개 시군을 거 쳐 광양 앞바다로 흘러든다. 강의 길이는 224km 로 한국에서 4번째로 길다.

'섬진강 시인' 김용택의 표현을 빌리자면 '퍼 가도 퍼가도 전라도 싹뿍같은 개울물들이 끊 이지 않고 모여 흐르는 강'이다.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만큼 수량이 풍부하다는 의미이지만 개울 물이 모여 강을 만들 듯 역사속에서 민초들의 애 환을 고스란히 간직해왔다는 뜻이다.

◇**화합의 강, 섬진강**=섬진강은 전남과 경남 을 경계 짓고 흐르는 탓에 자칫 영·호남 사람들 의 문화와 풍습, 정서를 가르는 '분단의 강'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. 하지만 역사속 섬진강은 사람 과 물자의 이동통로가 되면서 영호남 사람들을 한데 끌어안는 화합의 강이 됐다.

가수 조영남의 노래로 유명한 화계장터는 화 합의 강, 섬진강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 다. 윗마을 구례사람과 아랫마을 하동사람이 5일 마다 만나 왁자지껄 장을 펼치니 마음의 벽이란 없었다. 광양에선 빠걱빠걱 나룻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올 정도로 활발한 물물 교환의 장이었다.

광양사람들의 말투에 경상도 사투리가 섞여 있 는 것은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영호남이 오랫동안 문화와 풍습을 공유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.

◇**동서통합지대로 거듭나다**=섬진강을 사이

영호남 문화·풍습·정서 공유

굽이굽이 민초 애환 고스란히

역대 정부들 수계통합 계획

의지 부족 대부분 '용두사미'

남해안 선벨트 실패 교훈 삼아

정부 이번만은 제대로 해야

에 두고 영호남이 오랜 기간 같은 생활권에 문화 와 풍습을 공유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단절된 생활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. 정치권이 조 장한 지역감정과 교통 발달에 따른 대도시로의 집중현상 등이 원인이겠지만 섬진강 수계 통합 을 통한 동서화합의 필요성은 학계와 정치권에 서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다.

섬진강 수계 통합 개발계획이 처음 정부의 정 책안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이다. 남원·장 수·곡성·구례·하동·산청·함양 등 7개 시군 자

치단체장이 협의회를 결성해 관광개발에 광역 개념을 도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. 2003년에는 광양·율촌·하동·화양·신덕 등 5개 지구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했지만 섬진강 하류의 광양만에 집중되다보니 개발 효과가 섬진강 수계 전체로 파급되지는 않 았다.

섬진강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동서화합 개발 사업은 전문가·지자체·정치권이 참여해 2005 년 발족한 남해안포럼이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. 여기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중심이 돼 지역화합특위를 구성하고 활 동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 했다.

2010년 이명박 정부의 '남해안권 발전종합계 획' 이른바 남해안 선벨트사업이 탄생한 것이 그 것이다.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2011년부터 2020 년까지 384개 사업에 75조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맞먹는 성장·발전축을 남해안에 만들자는 거대 한 프로젝트다. 목포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을 3개 권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섬진강 자전거길 등 작은 규모의 일부 시범사업만 성과 를 내고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.

이런 과정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'동서통합 지대'가 나왔다. 박대통령은 동서화합과 균형발 전을 위해 남해안 선벨트의 '남중권'에 해당하는 섬진강 수계에 동서통합지대를 조성하겠다고 밝 혔다.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전 남발전연구원,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.

◇**법정부 사업으로 추진해야**=올해 초에는 나 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안이 어 떤 내용을 담을지는 미지수다. 다만 첨단기술지 대 등 산업관련 클러스터 조성, 영호남 왕래를 촉진하는 교량설치 등 SOC사업, 문화예술을 아 우르는 광역 관광개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된다.

내용이야 어찌됐건 동서통합지대는 섬진강 수 계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일체감과 동서통합에 적합한 중간지적 위치성,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을 축으로 한 단일 경제권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성 타당성이 충분하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안 선벨트 등 섬진강 수계 통합 개발안이 성과없이 끝난 것은 정부의 의지부족 탓이 크다. 동서통합지대 관련 지자체 가 전남과 경남에 걸쳐 8개 시군에서 많게는 12 개 시군에 이르러 통합된 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 지만 이를 핑계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.

정부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통합 컨트 롤타워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물론 관련 정부 부 처를 모두 참여시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.

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"그동안 수차례 계획만 있었지 제대로 실행이 안됐던 만큼 법정부 차원 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안으로 보 여줘야 한다"며 "동서통합의 상징성을 가진 한 러대교(여수-남해 연도교) 등 랜드마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"고 제안했다. /정필수기자 bungy@kwangju.co.kr

맞춤 웨딩의 명소 신양파크호텔

2014년 신년 **감사 웨딩 할인 축제**
기간 | 2014년 2월~3월(2개월)

감사할인 특별메뉴 (200명 이상)
뷔페 ₩30,000원~
스테이크 ₩35,000원~ (세금별도)

기타혜택: 객실 2실 무료제공, 꽃길 무료제공, 폐백실 무료제공, 열음조각 무료제공, 음주류 50% 할인, 웨딩컨돌 50% 할인

Shin Yang Park Hotel 예약문의 062)221-4101~3